

인도 종교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권 영 실 · 조 우 현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the Symbolism of Religious Costume of India

Young-Sil Kwon · Woo-Hyun Ch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Inha University

(1997. 1. 23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symbolism of religious costume which has showed the religious belief system through costume practice and culture. Indian Religious costume each has its own mark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In India, religion is a way of life. It is an integral part of the entire Indian tradi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dia's several main religions are Hinduism(About 80% of population), Islam(About 11% of population), Sikhism(less than 2% of population), Jainism(less than 1% of population), Buddhism(less than 1% of population) and Christianity(About 3% of population but excluding here).

Religious faith system which symbolized Godhood, spirituality, ascetics, restraint, chastity, sacred and dignity gave a certain shape to each color, ornaments, dressing and marking of religion costume. In connection with religion costumes, there were Hindu's Tika, sacred ash, long hair, knot and holy band(Yajnopavita), Buddhist's kayssa and tonsures, Jains' no covering, Muslim's chador and skullcap, Sikh's turban (with no cutting hair), comb, steel bracelet, drawers, sword or dagger.

The characteristics, head especially of thebody and white in the colors were made much account for India religion costume. Traditional costume seems to be worn at the present times in India. But apparently these costume associated with religion costume because of Hindu more than 80% of population.

I. 서 론

인간의 의식체계가 복식과 복식행위에 영향을 주는
패러다임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복식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의식과 현상의 상징체
계를 통하여, 복식디자인의 패러다임을 밝혀내고 디자
인작업에 있어서 의식이나 문화를 형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복식사의 연구가 필요하다.

의식체계가 복식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표현들간에 맥

략적 연관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의식체계가 상징화하여 확연한 연계성을 보여주는 종교의 복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종교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도의 종교복식을 고찰하였다.

현대에도 인도인의 다수는 종교와 관련된 복식을 일상복으로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더스문명의 발생당시부터 현대까지 인도인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의식체계인 종교와 인도복식에 표현된 관련 연구는 종교복식의 보편적 이해와 복식문화 통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인도에서 종교별로 특징적인 유형과 상징을 나타내는 복식의 착용모습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대중매체와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라는 믿음체계가 어떤 경로로 복식상에 상징화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는지 종교복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복식과 종교간의 관련성을 살피고 인도의 각 종교복식을 고찰하여 인도 종교복식의 보편성 및 믿음체계가 종교복식으로 현상화하여 표현된 상징체계를 밝히는 순으로 하였다. 연구자료로는 문헌자료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윤리종교에 속하는 불교·기독교·이슬람교, 자연종교에 속하는 원시종교의 복식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현대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 82.7%, 이슬람교 11.2%, 기독교 2.6%, 시크교 1.9%, 불교 0.7%, 자이나교 0.5%, 기타 0.4%로 분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이슬람교, 시크교의 복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현대 기독교는 외형의 복식상으로 거의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복식은 제외하였다. 인도의 종교분포는 힌두교를 제외하고는 지역별 집단현상을 보이므로 종교별 복식은 특징적으로 보이며, 신도분포의 수치는 적어보이나 인도의 9억 2천만 인구²⁾에 대한 %를 감안하면 적은 것은 아니다.

고찰에 앞서 '종교복식'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 종교복식이란 "종교상의 믿음체계가 인체 상에 특정의 존재양식으로 구체화되고 상징화된 복식과 그 복식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II. 복식과 종교

일반적으로 종교는 예술, 지식, 도덕, 법, 사회적 규범, 경제, 정치 등 문화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

친다. 유럽에 기독교가 유입되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유럽의 예술, 문학, 사상 등 문화 전반에 기독교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Durkheim은 종교를 '聖스러운 사물들, 즉 구분되고 금지된 사물들에 관련된 믿음들과 의례들이 결합된 체계'라고 정의하였다³⁾. 또한 종교는 믿음체계, 儀式체계, 사회조직(敎會)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그 중 儀式체계는 聖과 俗의 分離에 기반을 두고 否定的 儀式과 肯定的 儀式으로 나누었다. 否定的 儀式은 이전의 행동에 대해 禁止 혹은 禁忌(taboo)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肯定的 儀式 中에서 祭祀(sacrifice)와 模倣儀式(imitative rites)은 기본적인 儀式인데 祭祀는 祭物의 破壞나 희생을 통해서 聖과 俗의 間격에 상징적인 다리를 놓는 것이고, 模倣儀式은 토템이나 神같은 하나의 理想的 概念을 모방함으로써 自身을 정신적, 도덕적으로 高揚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⁴⁾.

종교에는 제도화된 儀禮, 규율적인 儀式(ceremony), 희생제의, 금기사항 등이 내재되어 있으며⁵⁾ 이런 것들은 문화의 저변에서 다양한 상징적 행위체제로 나타난다. 즉 종교가 다른 사상이나 철학체제와 구분되는 이유는 행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각 종교의 실천적이고 행위적인 측면은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복식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종교의식이나 예배시의 종교복식을 통해서 종교적 언어로서의 복식이나 복식행위에 대한 상징적 해석⁶⁾이 가능할 것이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리보(Ribot)는 종교의 신앙에는 두 가지 요소, 감정적 요소와 지식적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예배의식에서 이슬람교도는 신발을 벗는데 비하여 유대인은 모자를 쓰고 기독교인은 모자를 벗는다는 사실은 문화적 다양성으로 볼 수 있지만⁷⁾, 근본적인 이유는 각 종교의 지식적 요소의 행위 표출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루마니아의 사상가, Eliade는 종교의 역사를 다수의 聖顯(hierophany)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聖顯은 聖스러운 것이 드러나는 사건을 가리키는 어휘로 어원상은 '어떤 神聖한 것이 그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인간이 옷을 착용한 이래 수많은 종교가 성립하거나

분과하면서 종교의 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복식행위도 다양하였다. 티레(C.P. Tiele, 1830-1902)는 종교를 발달사적으로 자연종교와 윤리종교로 분류하였는데 종교가 발달하면서 자연종교보다는 윤리종교에 해당하는 복식의 규제나 금기가 많게 되었다. 각 종교는 종교형성 이전의 기존복식에 종교성이 표현되도록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聖典에서 복식행위를 制限하거나 強調하는 경우는 성스러운 의식행위로의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서 종교복식으로 존속되며 또한 종교적 특성이 내포되어 입혀진 敎主의 복식이나 神像에 보여진 복식 등은 模倣을 통해 역사적으로 존속 발전할 것이다.

미국 뉴욕시 윌리엄스버그 지역의 동유럽 출신의 정교파 유대인인 헤시드(Hasid)사회는 검은 더블슈트와 길고 검은 오버코트의 단추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미도록 하며, 아미슈(Amish)敎人の 옷에는 단추가 없는데 단추가 그들이 반대하는 군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추를 사용하지 않고 흑으로 여민다. 아미슈敎人の 의복은 전통적, 성서적 해석의 혼합체인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들의 의복은 그들과 다른 사람을 구별지음으로써 내부적 단결과 의도적인 대외적 고립에도 기여하였다⁷⁾.

III. 인도의 종교복식

1. 힌두교복식

힌두교도는 수많은 神을 통해서 하나의 최고신을 섬기며, 이 神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궁극적인 실재(Brahman)로 해석한다. 이 브라만은 어떤 제한된 속성을 거부하고 인간과 동물의 여러 형상을 띤 다양한 신들 속에서 '잠정적 형태'를 취한다. 각각의 여러 신들은 각각의 특성, 몸짓, 머리모양, 의상 등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⁸⁾. 힌두교 복식은 구루(Guru-인간과 신의 중재자이며 신들의 구체적 나타남), 요기(yogi-초인적 상태에 도달한 聖者), 苦行者, 신앙심이 깊은 신도 등의 복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힌두교의 사제인 구루나 요기, 성자들은 봉제되지 않은 布로서 하의로 한 장의 천인 도티(dhoti)와 상의로 한 장의 포(orhni or dupatta)를 왼쪽어깨에 걸친다. 성례를 집행하는 구루인 브라만은 흰색의 실크로 만든 도티, 고행자는 무명의 도티, 성자들은 오렌지색 布와

도티를 주로 입는다. 힌두교에서는 종파별로 구별되는 장식¹⁰⁾이 많이 보인다. 사제들은 왼쪽어깨에서 오른쪽 허리로 얇은 띠인 聖帶(악노빠비다, Yainopavita)를 걸치며 이 聖帶는 수드라를 제외한 3계급이 경전인 베다의 입문식 때 걸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식을 통해 드위자(Dvija) 즉 두번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재생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 聖帶는 경협세계와 초월세계의 合-을 의미하며, 모든 존재의 근원 절대자와의 결합을 뜻한다. 성대는 세가닥의 무명실을 처녀의 손으로 꼬은 것이다¹¹⁾. 고행을 주로하는 시바파는 사슴가죽으로 만들고 평화신을 숭배하는 사제들은 옷감, 진주, 화환 등으로 만들어 걸친다. 이 성대는 원시종교에서 인체내에 生靈을 봉해 두기위해 紐를 걸치는 행위¹²⁾와 유사한 영적 세계로의 聖入과 靈入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림 1]은 베다입문식의 장면인데 흰색 도티를 입고 어깨에 포를 입고 성대를 걸친 브라만의 모습이다.



[그림 1] 브라만의 베다입문식

또한 힌두교에서는 인체라는 소우주속에서 氣는 척추기저로부터 정수리로 통하는 道를 따른다¹³⁾고 주장하여 이마에 표시를 한다. 이 이마표시(Tika, Tilaka)는 시바(Siva)파와 비슈누(Viunu)의 종파에 따라 달리 표시하는데 白檀(Santalum album, Li'nn)으로 그린¹⁴⁾. 우주의 유지신 비슈누는 태양신으로서, 비슈누교

도들은 가운데 수직선이 있는 U자로 이마, 상완, 가슴 등에 표시를 한다. 이 표시는 세걸음(三步)으로 우주를 정복하였다고하는 비슈누신의 神聖을 상징하는 것이다. 한편 시바파에서는 이마에 '제3의 눈'을 표시한다. 시바신은 자신의 顯現 대상에 일치하는 구체적인 형상을 표시하는데¹⁵⁾ 시바신과 그의 권속들에 있어 가장 일치되는 특징은 세 개의 눈과 몸에 재를 칠하는 것이다. 시바의 神像에서도 보이는 두 눈은 태양과 달 양극성의 초자연적인 합일을 의미하고, 이마의 '제3의 눈'은 시바신의 파괴적인 힘(=불)을 나타내며, 동시에 인식의 불타오르는 개현으로 여겨 '지혜의 눈'이라 한다. 이마에 제3의 눈을 표시하기 위해 이마에 수평의 세 횡선을 그린다⁹⁾. 시바파와 비슈누파의 이마표시는 이집트에서 지배세력의 영구불멸을 의미하는 태양, 신을 상징하는 뱀과 독수리 등의 상징적인 모티브를 많이 사용했던 것¹⁶⁾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기혼의 힌두교 여성도들은 이마에 붉은 점을 그린다. 이마에 그리는 것을 빈디(Bindi)라고하고 이마 위 앞가운데 가르마에 2~3cm 그리는 것을 신두(Sindur)¹⁷⁾라 하는데 이것도 이마표시의 일종으로, 현대에는 힌두교 신자임을 상징하는 동시에 결혼 여부에 대한 구별을 나타내며, 남성신도들도 이마에 붉은점인 '지혜의 눈'을 표시하기도 한다.

힌두교의 시바파에서는 우주의 순수성이 재(聖灰)로 인해 완성되며, 시바의 씨앗이 재에 내재되어 있다고하여 생명과 속죄의 상징으로 인식한다. 聖灰로 온몸을 뒤덮은 채 명상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원시종교에서 착용자에게 악을 물리쳐 주고 행운을 가져오게 한다고 여기는 呪物이나 토렘을所持, 附着하거나 바디페인팅(body painting)하는 경우와 같은 맥락이고, 동시베리아의 사만인이 자연의 동물이나 상징물을 부착한 복식을 입음으로써 그 동물의 군세와 위력을 얻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精靈과 교섭하며 天界, 下界로 갈 수 있다고 하여 사만복 자체가 守護精靈을 포함한다¹⁸⁾는 내용과 같은 바디페인팅으로 보인다.

요기나 고행자들은 금욕과 고행을 상징하는 긴머리를 하고 수염을 자르지 않으며 특히 고행자들은 고행자임을 나타내는 매듭끈을 목에 건다.

현대 힌두교복식으로 보여지는 비봉제된 트레이퍼리형 의상, 각종 장식, 머리모양 등은 BC 2500년경 인더스문명의 石彫像, 陶製小像의 유물에서와 AD 5-6세

기 이래 활발히 세워진 힌두교의 각종 신들의 圖像, 彫像 등 神像에서도 보여진다¹⁹⁾. 이것은 역사적으로 인도의 근원적이며 가장 주요한 종교인 힌두교도의 다양한 신의 顯現에 따른 모방의식을 통한 복식행위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다수의 사제와 신도에 의해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2. 불교 복식

불교는 크샤트리아 계급인 붓다(깨달은 사람의 의미)에 의해 브라만교의 의례화와 특권, 카스트제도에 의한 차별과 같은 현실에 반대하여 주장된 종교이다. 힌두교에서는 붓다를 비슈누의 9번째 化身이라고 하여 불교를 힌두교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BC 6세기경부터 AD 1세기 경까지 인도인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BC 6세기경 불교의 발생은 불교사원을 만들어 내었는데 사원의 불상을 통해 고대 인도 불교복식을 살펴볼 수 있다. AD 1-2세기경에 세워진 간다라불상과 마투라불상에서 불타는 상의로 通肩가사나 偏袒右肩가사를 입고 하의는 도티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BC 2세기경부터 AD 7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아잔타석굴의 벽화에서는 보살과 신도의 복식을 볼 수 있는데, 모두 도티만을 입고 있으며 힌두인의 복식과 유사하게 보여진다. 이를 통해 불상에서 보이는 불타의 복식이 승려들의 복식으로 정착하여 불교복식인 가사가 기원한 것이며, 불교 발생이 힌두문화권이므로 불교복식도 힌두교적인 드레이퍼리형태의 복식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발생당시 불교의 도덕률은 그 추종자들로 하여금 승려의 삶을 살도록 요구했다. 초기의 불교 공동체(僧伽, Sanhga)는 서로 다른 카스트출신이 연합된 가난한 수도승들의 모임이었고 그 공동체의 규칙은 엄격하여 아무도 황색가사외에는 어떤 재산도 소유할 수 없었다⁹⁾고 전해진다.

AD 12세기에 불교는 사원의 인락과 타락으로 인해 인도에서 거의 쇠퇴하고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및 스톨라카로 전파되었고 현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그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 인도불교의 신도 수는 소수이며 카스트에서 최저계층이며 인간적인 멸시를 받고 있는 하리잔(불가촉천민)들에게 신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 인도의 불교복식은 불교가 동북아 등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파급된 불교복식을 살림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불교복식은 法衣인데, 법의란 ‘如法の衣’라는 뜻으로 ‘法’은 佛法이고, 梵語로는 kasaya(袈裟)라 하며 불교를 修道하는 僧의 복장이다.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서는 원래 下衣類(=도티)가 사용되고 있었지만, 차츰 寒冷의인 중국 等地로 불교가 유포되면서 그 나라의 풍토에 알맞은 복식이 考案되었다. 袈裟가 인도에서는 단순한 옷이었는데 이런 상징 또는 의식을 위한 하나의 被着物로 바뀌면서부터 가사 안에 입고 있는 그 나라의 정식복장이나 혹은 새로이 고안된 복식 등이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형식을 만들며 法衣에 포함되었다. 불교 성립 당초에는 袈裟만을 법의라 칭하였으나 전래과정에서 각 나라의 그 밑에 겹쳐입는 內衣類를 포함하여 僧侶의 몸에 걸치는 것은 모두 法衣라고 불리게 되었다²⁰⁾. 우리나라의 경우도 법의로 정식의 복장인 가사 외에 고안된 法衣로서 長衫, 東方衣, 僧帽 등 여러장식품이 있다.

법의가 일반복장과 다른 것은 종교복식으로서 특이성, 獨善性이 있다는 점인데 이는 教祖정신의 保守를 위한 노력으로 전통적·의례적 복장의 형태가 후세까지 전한 것이다. 또한 석가의 教說을 때와 장소에 따라 새로운 해석을 더해 하나의 주장을 형성한 각 종파의 祖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복장에 대해서 각각 獨自의 창의를 더한 것이 많이 있다. 불교의 袈裟가 생기게 된 원인을 外都의 事情과 內面의 事情으로 나누어 보면 내면적 사정이란 佛弟子가 경허한 태도의 생활을 위해 色과 形 등의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외부적 사정은 승려들의 속인과의 구별, 外道의 복장과 다른 의복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으로 보았다²¹⁾. 불교에서는 가사의 착용시 袈裟功德이 생긴다고 하여 正法眼藏의 「袈裟功德」에는 10가지를 들고 있다. 그 내용은 가사를 입을 시 모두가 해탈의 보좌에 앉고, 지혜의 검을 잡고, 번뇌와 악귀를 퇴치함과 함께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며 속세의 의복은 욕망의 더러움을 증가시키나, 가사를 입으면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²²⁾. 悲華經에는 5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죄를 범했을지라도 가사를 입고 충하면 부처가 되는 길에 멀지 않을 것이고 둘째, 귀신이 있다해도 가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고 셋째, 원수가 맺혔을지라도 가사를 입으면 가까운 사람이 富者가 될 것이고 넷째, 중생이 고통스러워도 가사의 힘으로 자비심이 일어날 것이며 다섯째, 전쟁중이라도 가사를 존중하면 적에게 이길 수 있

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즉 불교에서의 가사는 일종의 영적인 힘이 있어 俗을 차단하고 영적세계(열반세계)로의 聖入하는 종교복식으로 해석된다.

불교의 가사는 원시인들이 聖界와의 교섭, 악귀퇴치를 기원하여 복식에 동물이나 토렘을 소지하거나 장식하고 페인트와 문신하는 종교적의식으로 독특하게 형상화하여 종교관이 존속되고 外在하게 한 역할과 같은 내용으로 보인다.

현대 인도의 불교복식은 袈裟와 도티를 들 수 있으며 금욕을 의미하는 삭발을 한다[그림 2 참조]. 도티는 인도의 고대부터 입혀지던 일반복식이 불교복식인 법의로 되어진 경우이며, 힌두교의 장식성향에 비해 현대 불교복식에서는 장식성이 보이지 않는데 이런 특징은 금욕과 속세의 차단을 강조하는 불교의 덕목과도 연관한 것이다.



[그림 2] 불교의 승려

인도의 가사는 황색이 보여지는데 붉은색 도티와 함께 입기도 한다. 황색은 ‘가난한’, ‘순수하지 않은’이라는 뜻을 가진 카스트의 색이다. 초기 불교 공동체인 승가는 여러 카스트가 연합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빈곤’, ‘혼합’이라는 카스트 의미의 색이 현대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힌두교 고행자들이 황색의 포를 걸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불교도는 장례시나, 설법을 들을시 흰색 사리를 입는다.

3. 자이나교 복식

자이나교는 BC 6세기 경에 당시 정통베다의 의례에 반대한 크샤트리아계급 출신의 바르다마 마하비라에 의해 창시된 종교이다. 현재 신도는 300만 정도이며 공의 파는 주로 남쪽인 데칸지방, 특히 마이소르에 많이 있

고 백의파는 북쪽에 속하는 카티아와르, 구자라트, 라자스탄 지역에 주로 거주한다.

자이나교의 수행을 하려면 출가하여 沙門으로서 乞食 생활을 해야하고 이런 수행자를 比丘(bhikkhu)라고 하는데 이들 비구는 不殺生, 不妄言, 不盜, 不狀, 無所有의 다섯가지 根本敎戒를 지켜야한다. 이중 불살생의 戒는 자이나교에서 가장 중시된다. 심지어는 해충도 죽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생명체를 우연히 삼키지 않도록 물을 체에 걸러 마시고 같은 이유로 입을 형겁으로 가린다.

금욕주의자인 자이나교도는 옷입기를 거부한다. (Digambara-빛으로 옷을 삼는다는 주장)³⁾ 사원의 교주인 마하비라는 12년간의 고행후 옷을 모두 벗고 완전지에 도달하고, 제자들에게 옷을 입지 말하고 가르쳤다. 엘로라 사원북편에 있는 자이나교 사원의 부조상에서 나체의 교주 모습[그림 3 참조]을 볼 수 있다. 자이나교의 종파는 기원전 후에 백의파(白衣派, Digambara)와 공의파(空衣派, Svetambara)로 나뉘었다²⁾. 특히 공의파는 무소유의 敎戒를 엄격히 지켜 의복을 입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空衣派라는 명칭을 얻었고 백의파는 북쪽에 살기 때문에 지방 풍속과 기후관계로 흰 옷으로 몸을 가리웠으므로 白衣派라는 명칭을 얻었다⁵⁾.



[그림 3] 자이나교 사원의 부조상

분파에 대한 유래는 찬드라굽타왕때 마가다지방(지금의 비하르)에 기근이 들어서, 제5대 敎主 바드라바하(Bhadravaha)는 수도승과 더불어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마가다로 돌아와 보니, 거기에 남아 있던 수도승들이 그들 나름으로 聖典을 편찬하고, 제율을 변질시키고 白衣를 입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裸形派는 이에 반대하여 백의파와 갈라지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 종파의 명칭이 복식과 복색의 차별에서 기인한 것은 티벳 불교의 분파와 유래가 비슷하다. 티벳불교는 겔룩파(Gelugpa sect, 黃帽派)와 사카 홍모파(紅帽派)가 있다. 겔룩파의 창시자인 총카파(1357-1419)는 초기 불교의 엄격한 도덕률을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자신을 따르는 승려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부과하고 황색 옷과 모자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요구하여 이전의 지배적이던 사카 홍모파와 대조적인 황모파로 불렸다고 한다⁶⁾.

현대의 가장 독실한 자이나교의 사제는 실제로 옷을 입지 않고 삭발을 한다. 이것은 자이나교의 교리인 무소유의 제율이 全裸形이라는 상징적인 복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무옷도 입지 않고 보행시 살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손에 빗자루를 들고 다닌다.

4. 이슬람교 복식

인도에서의 이슬람교는 자생한 종교가 아닌 외래종교이다. 인도에 있어 이슬람침입은 AD 8세기까지 소급되지만 11세기 이래 인도의 사상·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슬람교의 특징적인 현상은 종교가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종교가 명확한 사회·정치체제와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도는 델리를 중심으로하는 인도의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슬람교는 아랍에서 생겨났으므로 이슬람교 복식과 그 특징은 아라비아 복식에서 찾을 수 있다. 아라비아는 아시아 대륙 남서부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북쪽은 사막지대로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의 사하라로 이어지는 대사막 지대의 증양부를 차지하고 있다. 대륙의 사막은 생물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며 남서부 곳곳에 오아시스를 만들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극도로 건조하다⁷⁾.

중동지역의 복장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나 옷들을 접

쳐 입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강한태양, 모래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인체내 수분의 증발을 막기위해 옷을 걸쳐 입는 아라비아인의 복장은 태고적부터 관습이었다. 이러한 전신을 감싸는 형태의 복식은 열악한 자연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였지만, 이슬람교에 흡수되어 현재는 이슬람교도의 전통으로 정착되었다²³⁾. 이슬람교 이전에도 頭部를 감싸는 것은 “정숙”과 “존경”의 표시로 중동지역에서 받아들여졌다²⁴⁾.

이슬람교 발생이후 명백하게 달라진점은 색상인데 발생 이전 여성복은 화려한 색상이었으나 현대 아랍의 남녀복식은 모두 수수한 무채색이다. 이슬람교 발생 전 북부 아라비아의 지배민족인 팔레스타인의 베두인족은 안면베일(face veil)에 악귀를 쫓는다는 부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각종 구슬, 보석, 화폐 등을 달았다. 푸른색은 악마의 눈에서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였고 홍옥은 多産을 보증해 주고 산호는 성공을 확실하게 해주고 호박은 좋은 건강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여 면으로 만든 띠에 십자수를 놓고 장식물을 달아 안면베일을 만들어 썼다²⁵⁾고 하였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서 여성은 남자들의 즐거움을 위해 알라에 의해 창조된 복속물로 간주되며, 호사스러운 몸단장을 금하도록 되어있다³⁾. 또한 여자가 외출할 때 얼굴과 몸을 가리는 베일을 쓸 것을 勸告하며 이것은 여자를 속박하기 위한 것보다 타인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슬람복식은 고대로부터 문화적, 자연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감싸고 두르는 관습이었던 일반복식인 아랍인의 복식 특성이 이슬람교의 종교적 행위체계에 흡수되어 은폐형의 종교복식으로 채택되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아랍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이슬람교도에게서 인체를 감싸는 유형의 복식이 입혀지기 때문이며 현대 인도에서도 이런 은폐유형의 복식이 보인다. 같은 종교복식의 예로서 기독교 복식도 일반복식에서 종교복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전광희의 “기독교복식에 표현된 상징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初期 기독교복식이 평상복에서 禮典服 형성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였다. 초기 기독교 복식은 일반복식인 달마티카, 팔리움, 파에놀라로 일반복식과 성직자의 구별없이 의식시 평상복을 입었으나, 7세기 경에 일반복식과 성직자 복식이 구별되어졌고, 11세기에 예전복인 알브(alb, 長白衣), 케슈블

(chasuble, 祭衣), 달마티카(dalmatica, 法衣), 팔리움(pallium), 스톨(stole, 領帶)이 형성되었다²⁶⁾. 기독교복식은 十字形的의 寬衣型이며 기독교를 상징하는 문양이 紋織 또는 刺繡되었다.

현대 인도의 이슬람복식은 과거 무굴제국의 이슬람복식과 다르다. 무굴왕조당시 이슬람복식을 보면 특히 남성의 경우 코트와 통쪼름은 바지, 머리에는 터번을 썼고 여성은 몸에 밀착된 상의 즉 짧은 블라우스인 출리(choli), 통형 스커트와 통쪼름은 바지를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현대 이슬람교도 여성은 주로 아랍계의 눈만 보이도록 가려입는 흰색이나 검은색의 차도르나 부루카를 걸치고 하의는 파자마를 입는다[그림 4 참조]. 이슬람 사제는 카프탄인 아칸(achkan)과 추리다르(churidar)를 입고 터번이나 원통형의 모자를 쓰고, 신도들은 긴 가슴까지만 트여진 셔츠와 하의는 긴 파자마를 입는다. 카프탄(caftan)은 아랍 전통복식의 기본이다²⁷⁾. 인도의 모슬렘들은 머리에 스킨캡을 쓰며, 이것은 모슬렘들이 기도할 때 썼기 때문에 ‘prayer cap’이라 부르기도 한다.

5. 시크교 복식

15세기 무렵에 형성된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결합시켜 개혁된 종교인 시크교의 교도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복장법을 따른다. 현대 편잡지방에 수많은 시크교도들



[그림 4] 모슬렘 여성과 어린이

이 살고 있다.

시크교의 제 6대 구루인 하르 고빈드(Guru Har Gobind)는 구루취임식 때에 行者의 옷을 입지 말고,王者(당시 王은 무굴제국의 자한기르왕)의 옷과 칼을 차도록 명령하였다. 이때 王服은 카프턴인 코트(Coat)이므로 시크교도의 옷은 코트와 유사한 원피스 형태로 형성되었다. 또한 제 10대 구루 고빈드(Guru Gobind Singh)는 1699년에 무력을 써서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칼사(Khalasa, pure, 純粹)派를 창시하였다. 이 칼사파는 다섯가지 K(5K's)로 시작하는 케시(Kesi, 긴머리), 칸가(Kanhga, 빗), 카차(Kachha, 짧은 바지), 카라(Kara, 쇠팔지), 크리판(Kripan, 칼)을 준수하게 하였다²²⁾. 칼사파는 시크교도 中 세례 의식을 마쳐야 하며, 이렇게 하여 시크교복식이 완성되었다. 시크교의 구루는 신과의 合一을 돕는 자로서 神과 같은 존재에 해당하는데, 기독교에서 신이 외형의 차례보다는 내면을 선한 것으로 피복하라²³⁾는 복식에 대한 신의 명령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크교 사제[그림 5 참조]들은 보라색의 허리부분까지만 트인 단추로 여며 입는 원피스형 코트를 입고 신도들은 무채색의 코트를 입는다. 시크교도들은 하의로 도티(dhoti)대신 유사시 만반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짧은바지를 입는다. 시크교도들은 신체의 毛를 자르



[그림 5] 시크교의 구루

지 않으므로 긴머리는 번(bun)으로 묶어 터번을 감아 쓴다. 터번은 힌두교와 이슬람의 영향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터번으로 감싼 긴 머리카락은 두개골을 보호하면서, 요가신앙의 긴머리를 통해 생동력을 보존하고 기른다는 의식의 힌두교사상과 아랍의 복식이 이슬람복식화한 전통적인 터번이 도입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사제의 터번은 노란색이다. 손목에는 종교적 구속을 의미하는 쇠팔찌를 하고 허리나 가슴에는 자기방어용이며 호전성을 보여주는 단도를 차며 빗을 소지한다. 장신구는 주로 쇠로 만든 은색이다. 팔찌는 조그마한 보호용구인 동시에 오직 신에 대한 헌신으로써만 봉사한다는 다짐으로써 신에 대한 '족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IV. 인도 종교복식의 상징성

지금까지 현대 인도의 종교복식을 힌두교·불교·자이나교·이슬람교·시크교 복식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현대 인도의 각 종교복식은 역사적으로 종교의 성립 발전과 함께 발달변천하여²⁴⁾ 현대까지 일반복식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그 영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보여졌다. 또한 종교의 믿음체계가 복식으로 상징화하여 나타나는 과정에서 인도 종교복식의 보편성과 상징성을 밝힐 수 있었다.

1. 인도 종교복식의 보편성

인도 종교복식의 상징화과정에서 나타난 보편성은 다음과 같다. 인도 종교외에 다른 종교복식에서도 보편성은 유사할 것으로 추어된다.

첫 번째, 인도 종교복식은 그 형성과정에서 각 종교의 믿음체계가 복식상의 특정양식 즉, 장식, 피복방법이나 피복부위, 색채 등으로 상징화하는 보편성이 있다. 종교의 지식적 요소의 행위표출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俗과의 차단·聖으로의 영입, 종교적 신분 및 권위의 과시, 神聖의 모방, 종교예의의 구속, 금기, 성별 등 종교의 믿음체계가 복식상에 상징화하여 인도의 각 종교복식에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힌두교, 시크교 복식은 장식으로써 聖性を 상징하고 결과적으로 구별표시가 된 경우이고 자이나교, 이슬람교, 불교복식은 장식을 제한함으로써 성스러움에 몰입하도록한 복식이

다. 피복방법에 있어서는 각 종교에서 모두 인체의 머리부분을 통해 聖性을 표현하기 위해 힌두교의 장발, 불교의 삭발, 자이나교의 삭발, 이슬람교의 스킴캡이나 감싸기, 시크교의 장발, 수염과 턱번 등의 경우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인도의 종교복식은 자연환경에 순응하기 위한 트레이퍼리형의 복식에서 유래하여 각 종교가 성립 발전하면서 종교적 의미가 부가되고 상징화되어 현대까지 종교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종교복식이나 종교의 이념은 종교의 발전 정도 또는 종교의 행위나 의식의 강조 여부에 따라 일반복식에 영향을 미친다. 의복형성에 물리적인 환경인 자연환경적 요인은 종교복식의 유형결정에 큰 요인이 되어 종교성립 이전의 기후나 문화에 순응하였던 복식의 유형을 대부분 흡수하며 일반복식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역사적으로 주요한 종교의 믿음체계는 일반복식을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중세 기독교 복식도 일반복식에서 유래하여 예전복이 확립되었으며 중세의 복식은 기독교적 문양이나 색채가 많이 사용되었고 인체를 가리고 감싸는 형태의 의복으로 일관되었다³⁰⁾. 또한 근대 청교도인의 현세에서의 물질적 만족을 좌악시하고 내세 위주의 근검에 대한 의식은 복식에 있어서도 화려한 치장을 피하고 어두운 색조와 간소한 형태의 복식을 착용하도록 하였는데³¹⁾ 이러한 사례는 기독교가 일반복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주의 복식, 神·神像의 복식, 경전의 복식제한 등은 종교복식의 전래와 보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현대 인도 종교복식은 종교의 성립과 함께 깎개념이 상징적으로 가지화된 神·神像의 복식 또는 교주의 복식 등이 모방 전래되어 잔존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신, 교주가 형상화하거나 신상이 존재하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복식에서 보여지며, 교주의 성스러운 가르침이 들어 있는 경전에서 제한을 가한 복식도 종교복식으로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불교, 이슬람교, 시크교의 복식이 이에 해당하였다. 인도의 종교는 역사적 변천속에서 발생하여 현대까지 종교적 관습과 전통이 유지되고 있으며, 종교복식도 현대까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종교생활이 밀접한 힌두교, 이슬람교 교도들의 복식은 역사적으로 일반복식이 종교복식화하고 다시 일반복식화한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에 일반복식이며 민속의상으로 보여지는

80% 이상의 힌두교신도의 트레이퍼리형 의상은 종교복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인도의 각 종교복식은 복색을 통하여 종교적 의미를 부가하여 나타내고 있다. 각 종교복식에서 종교적 知性, 깨달음, 생명, 聖性 등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복식에 이용되었다. 특히 흰색은 聖스럽고 종교적으로 구별된 색으로 인지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힌두교에서는 흰색·황색·붉은색이 주요색으로 인식된다. 제사를 담당하고 지식층인 브라만은 영적 깨달음과 聖性を 상징하는 흰색의 도티를 입으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성자들은 진리를 상징하는 황색이나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색의도티와 오르니를 입는다. 힌두교의 여신중 칼리는 피의 제사를 받으며 칼리와 신자들은 피의 제사를 마치고 아이의 이마에 붉은점을 찍어 준다. 붉은색은 힌두교에서 생명성과 창조성을 의미한다.

인도 불교복식인 가사는 황색이며 신도들은 의례시 흰색사리를 입는 것을 볼 수 있다. 불교에서의 황색은 방기, 무욕, 검허를 의미하며 흰색은 속죄의 의미가 있다. 인도의 불교는 역사적으로 힌두교에서 분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힌두교의 복색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이나교의 백의파는 흰색옷을 입는데 흰색은 순수한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슬람교의 복식은 성과 속의 차단개념이 상징화된 대표적인 것으로서 색채에 있어서도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흰색이나 검은색 등 무채색을 입는데 일반적으로 검은색은 지조가 있으며 어두운 색이고, 흰색은 성스럽고 성별된 상태를 의미하는 색이다.

시크교의 사제는 노란색 터번에 보라색 상의를 입으며 보라색 터번과 흰색상을 입기도 한다. 흰색은 성별의 의미가 있고 보라색은 종교적 헌신의 뜻이 있는 색이며 노란색은 지성과 신상의 의미를 가진 색이다.

인도의 종교복식에서 흰색은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공통적인 색으로 주요하게 사용되었고 황색도 힌두교, 불교, 시크교 복식에서 의미있는 색이었다. 인도의 각 종교의 발생은 이슬람교를 제외하고는 힌두교와 불가분의 관계속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2. 인도 종교복식에 표현된 상징체계

종교의 믿음체계와 의식은 깎개념을 드러내려는 많은

상징을 통해 종교복식에 표현되며 현대에는 주로 사제의 복식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상징은 사물의 상태, 성질, 이념 등에 대한 비가시적·추상적 의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감각물질의 세계로 바꾸어내게 하는 것이다²⁰⁾. 특히 종교상징은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을 드러내려는 종교사상의 표현양식이다. 종교의 내면세계의 양상은 복식에도 독특하게 형상화되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인도 종교복식은 형성시기부터 현재까지 종교적 상징이 존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각 종교의 믿음체제는 복식상의 장식, 색채, 의복유형 및 피복부위 등을 통해 상징화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힌두교의 이마표시·회칠·긴머리와 수염·매듭·성대, 불교의 가사와 삭발, 자이나교의 의복착용거부, 이슬람교의 차도르·스컬캡, 시크교의 터번·쇠팔찌·단도는 각 종교의 神性, 종교에의 구속, 금욕, 聖俗차단, 지혜 등의 믿음체제가 복식상에 상징화한 것이다.

힌두교복식의 이마표시는 종파별 신의 속성이 상징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힌두교의 머리중시 의식은 브라만을 상징하는 것으로 브라만은 인체의 머리부분에 해당한다. 고대 베다의 신화에서 뇌는 영혼의 안식처이며, 머리윗부분을 덮는 것은 악귀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로 모든 종교적 의식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었다. 머리를 덮은 것은 힌디 속어로 'sir dankna'(covering the

<표 1> 현대 인도 종교복식의 상징 및 의미

	종교 상징		상징 의미
힌두교복식	장 식	비슈누파 이마표시 사마파 이마표시 : 聖灰 칠 매듭 聖帶	卍 : 비슈누 상징 비슈누의 三歩로 우주정복을 의미 제3의 눈 : 시바신의 파괴적인 힘과 지혜를 상징 聖灰 : 속죄, 시바의 精氣내재. 연속, 不死, 무한을 상징 절대자와의 결합, 영적 재생 의미
	머리모양	긴머리와 수염	금욕과 고행을 상징
	의 복	도티, 장방형布	힌두교복식화한 非縫製衣
불교복식	장 식	×	×
	머리모양	삭발	금욕을 의미
	의 복	가사	빈곤, 무욕
자이나교복식	장 식	×	×
	머리모양	삭발	금욕
	의 복	×	무소유
이슬람교복식	장 식	×	×
	머리모양	스컬캡	俗의 차단, 靈入
	의 복	차도르 부르카	코란(외출시 베일 착용명령), 여성관 聖俗 차단, 은폐
시크교복식	장 식	쇠팔찌	종교적 구속
		단도	호전성, 위업
		빋	금욕이나 고행에 반대되는 정결
	머리모양	긴머리	영성(spirituality), 헌신
의 복	원피스형 코트 짧은바지	교주의 명령 정절과 자기통제	

head)로 미혼녀의 '순결을 잃은 것'을 의미한다²³⁾. 힌두교의 머리 중시 의식은 머리를 덮는 것이 악귀로부터의 보호의미와 정숙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마에 적는 붉은 점도 남녀모두 머리 중시의식에서 기원하지만, 현대 여성의 붉은점은 힌두교도의 결혼여부 표시이며 남성의 경우는 종파별 표시로 남아 있다.

인도 불교복식은 기본적으로 가사와 도터를 입는데, 초기 불교의 승가에서 가난, 빈곤, 무욕 등을 상징하던 가사가 현대까지 그 의미가 잔존되어 전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삭발은 후대에 이루어진 종교상징으로 금욕을 의미한다.

자이나교 복식은 全裸形으로 無所有를 상징하며, 종교적 신념체계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대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종파의 명칭도 백의파는 흰옷을 입었기 때문이고, 공의파는 전혀 의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공의파라는 명칭으로 유래하게 된 것이다. 무소유에 대한 개념이 성스러운 것으로 상징되어 聖개념이 일반적인 수치심도 극복할 수 있는 全裸모습까지도 감수할 만큼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권 여성이 입는 차도르나 부르카는 원래 신체적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관습적인 복식이었으나 종교적 이슬람교의 여성관에 따라 정숙과 경계의 표시로 입혀진 복식이다²⁴⁾. 현대 인도의 이슬람 여성이 이슬람교 복식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모슬렘을 상징하는 전신을 감싸고 은폐하는 차도르나 부르카를 입는 것은 역사적 관습보다는 종교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모슬렘 남성들은 기도나 예배시 반드시 스킨캡을 쓴다. 스킨캡은 원래 아랍 남성들의 머리에 쓰는 '구트라'라는 포가 머릿가름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고안된 모자이며, 현대에는 성스러운 장소에서 俗과의 차단 의미가 있으며 종교적 상징을 띤 종교복식의 하나로 정착하였다.

시크교의 터번은 시크교의 상징이며 쇠팔찌는 시크교에 대한 구속의미가 있다. 특히 터번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이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힌두교의 머리중시 의식과 전통 모슬렘들이 과거에 쓰던 아이탐을 도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호전적인 시크교의 종교 집단인 순수칼사파는 컷 K로 시작하는 5가지로서 긴 머리, 빛, 짧은 바지, 팔찌, 칼을 준수해야 한다. 시크교 집단의 종교적 특징인 호전성이 복식상에 기능과 상징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현대 인도 종교복식의 상징과 의미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복식상의

색채는 종교복식의 상징체계로서 주요한 방법이나 보편성고찰에서 다루었으므로 제외하였다.

V. 결 론

이상으로 문헌고찰과 현지조사를 통하여 서론에서 언급한 종교적 의식체계가 상징을 통하여 복식에 나타나고 있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종교는 기존 복식을 변화시키고 각 종교적 지식체계가 儀式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복식상에 상징화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형성된 종교복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종교와 밀접하게 하는 기능을 갖게 하고 소속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력까지도 부여된다. 또한 종교복식은 믿음체계, 儀式체계와 사회조직(教會)라는 신과 인간간의 상호작용간에 위치하여 구성되는 주요한 요소로서 위치를 갖는다.

Durkhiem은 '모든 종교는 사물을 두개의 반대 집단, 즉 聖의인 것(sacred)과 俗의인 것(profane)으로 구분한다'²⁵⁾고 하였다. 종교인의 聖에 속하고 俗을 멀리하기 위한 인도인의 믿음체계는 인도인의 의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패러다임으로서 종교복식에 뚜렷히 나타나고 있었다.

인도 종교복식은 형성시기부터 현재까지 종교적 상징이 존속되고 있다. 종교의 믿음체계에 해당하는 종교별 신의 속성, 금욕, 종교적 구속과 聖으로의 영입, 속죄와 정화 등의 意識적 요소들이 복식상의 색채, 장식, 의복 유형 및 피복부위 등으로 상징화하여 나타나 구체화하였다. 색채에 있어서는 모든 종교가 흰색을 종교적으로 聖別된 순수색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장식이나 피복부위는 복식상 상징적 표현에 있어 공통적으로 머리부분을 통해 가시화하고 있었다. 의복유형은 인도의 자연환경 순응에 적합한 드레이퍼리형의 복식이, 외래종교인 이슬람교와 이슬람교 성격이 내재된 시크교를 제외하고는 종교복식의 기본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인도인에게는 복식과 복식행위 자체도 영적 표현대상으로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었다. 종교복식은 종교·종파의 구별이나 상징물로 현재 인도에서는 일상적이다.

인도의 대다수가 하나의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점, 종교의 발달과 역사발전을 같이하여 온 인도의 종교적 특성, 힌두교의 일상생활과 종교생활의 일원화적 특성과 80% 이상의 신도수를 고려할 때 인도의 민속복으로 보여지는 드레이퍼리타입의 복식은 민속복이자 종교복

식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종교적 의식체제를 바탕으로 복식에 나타나는 상징적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나, 앞으로는 폭넓은 문화적 의식체제와 복식과의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각각의 종교복식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 1) <http://www.lehigh.edu/inlab/public/www-data/f95/indiaab.html>.
- 2) 에밀 뒤르케임, 노치준 外譯,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민영사, p. 81, 1992.
- 3)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광사, pp. 116-118, 1986.
- 4) 세르게이 트가레프, 한국종교연구회 譯, 「세계의 종교」, 사상사, pp. 321-397, 1991.
- 5) L.K. 뒤르케, 권수경역, 「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서광사, pp. 39-162, 1996.
- 6) 채필근, 「비교종교론」, 대한기독교서회, pp. 53-151, pp. 350-360, 1980.
- 7) Marilyn J. Horn/Lois M. Gurel,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pp. 30-39, 1981.
- 8) 멀치아 엘리야데, 이동하 譯, 「聖과 俗-종교의 본질」, 학민사, p. 11, 1994.
- 9) 조셉 M. 키타가와, 이진구의 譯, 「동양의 종교」, 사상사, pp. 125-126, 1994.
- 10) 안넬리제 외, 전재성 역, 「힌두교의 그림언어」, 동문선, pp. 56-175, 1994.
- 11) 타임-라이프북스 편집부, 「Library of Nations-India」, 한국일보타임-라이프, p. 51, 1988.
- 12) 深作光貞, 「衣の文化人類學」, pp. 36-40, 1983.
- 13) Ajit Mookerjee 外1인 著, 金龜山 譯, 「탄트라」, 동문선, p. 61, 1990.
- 14) 우담지연 編著, 「불교의 꽃이야기」, 불교꽃꽃이 연구소, p. 139, 1994.
- 15) 시바신은 주로 북인도의 경우는 삼지창(Trishula)과 뱀(Nara), 남인도에서는 도끼(Kuthara)와 사슴(Mriga)으로 치장하여 특징을 나타낸다. : 안넬리제 외 1인, 앞의 책, p. 165.
- 16) 정홍숙, 「복식문화사-서양복식사」, 교문사, pp. 14-19, 1994.
- 17) 1994년 11월 13일 인도의 봄베이에서 마드라스와 편잡출신 인도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임.
- 18) 박금주, 「동시베리아 샤만복식-야쿠트인, 유카기르인, 골디인을 중심으로-」, 복식 22호, pp. 85-95, 1994.
- 19) 한국일보사, 「세계의 박물관-제18권 실크로드박물관」, pp. 13-18, 1989.
- 20) 인영자, 「한국의 종교복식-불교와 도교복식을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사, pp. 15-16, 1990.
- 21) 안명숙, 「袈裟의 衍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6-14, 1989.
- 22) 鄭泰麟 著, 「印度宗教哲學史」, 백산출판사, pp. 52-178, 1991.
- 23) Heather Colyer Ross, 「The Art of Arabian Costume」, Arabesque Commercial SA, pp. 11-38, 1981.
- 24) 홍나영, 「女性 쓰개의 歷史」, 학연문화사, pp. 123-134, 1995.
- 25) 박금주, 「팔레스타인의 여성복식 고찰-20C 초기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19호, pp. 195-206, 1992.
- 26) 알브는 4세기 속옷으로 입었던 긴조생이 튜닉에서 유래된 고위 성직자들이 입는 케슈블과 달마티카 속에 입는 튜닉이다. 케슈블은 고대 로마인의 파에놀라에서 유래된 성직자가 예배전전시 알브나 달마티카위에 입는 판초형태의 外衣이다.
- 27)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3:2-3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은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 28) Huston Smith, 이종찬 譯, 「세계의 종교」, 은성, p. 118, 1993.
- 29) 권영실 외, “인도복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 2호, 1995.
- 30)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p. 99, 1991.
- 31)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p. 56, 1990.
- 32) 김용직, 「상징」, 문학과 지성사, p. 21, 1988.
- 33) S.N. Dar, 「Costumes of India and Pakistan」, (Bombay: D.B. Taraporev-ala sons & Co. Private Ltd), p. 2, 1982.
- 34)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광사, pp. 38-40, 1986.